

#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b>무주택자 정보센터를 통해 긴급주거 서비스 제공</b>	시드니
행정·재정	3	市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제공	리옹
방재·안전	4	노인요양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뉴사우스웨일스
	5	지반 액상화(液状化) 대책 발표	도쿄
도시환경	6	브롱크스강 유역에 '오염 컨트롤 장치' 설치	뉴욕
	7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날카로운 의료폐기물 분리수거	시드니
	9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과정을 견학하는 버스여행 실시	교토
	9	친환경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 및 전기차 테스트센터 건립	상하이
도시교통	10	<b>보행환경을 점수화하는 웹 프로그램</b>	런던 외
	12	<b>자전거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 등 실제로 자전거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담은 지도 제작</b>	오스틴
	14	<b>도심의 강 아래로 교통터널을 건설하고 지상에 녹지와 보행도로 조성 추진</b>	산티아고
	16	<b>자전거 주행공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b>	도쿄
	18	무료 대중교통 이용 프로그램 시행	탈린
	19	초등학생 대상으로 자전거 타는 법 배우기 의무화	리옹
부록	21	<b>2013년 세계 주요도시 시장 신년사(요약)</b>	



## 헤드라인 뉴스 (건강·복지)

### 1. 무주택자 정보센터를 통해 긴급주거 서비스 제공 (시드니市)

○ 호주 시드니市의 무주택자 정보센터(Homeless Persons Information Centre)는 매일 평균 약 160명의 긴급주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무주택자 정보센터는 2012년 한 해 동안 전국의 1만 5000명 이상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부양 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구임. 주요 서비스는 보건 및 긴급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사회단체에 의뢰하는 것임.

- 무주택자 정보센터의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 및 의뢰 서비스는 198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음. 이용자는 대부분 주거 스트레스, 가족 해체, 가족 갈등을 겪고 있는 이들로 퀸즐랜드나 빅토리아주에서 이주한 이들도 상당수에 달함. 센터는 뉴질랜드, 미국, 유럽으로부터도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있는데, 주로 비자가 만료되어 호주에서 추방된 뒤 다시 호주로 복귀하고자 하는 이들로.

· 지난 회계연도에 무주택자 정보센터는 5만 8644건의 도움 요청 전화를 받았으며, 이 중 4만 5448건은 당일 밤 숙소가 없어 숙소를 구하는 전화였음. 또한 3만 6879건은 독신자들이었으며 6192건은 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구였음.

- 무주택자 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시드니의 주거서비스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임대료는 계속 상승해왔고, 어떤 지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Social

Housing)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최대 15년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임. 단기 공동숙소(Boarding Houses)는 보통 주당 100달러(약 11만 원)로 다소 저렴한 비용을 부과해 왔지만, 이들은 대부분 여행자 숙소(Backpacker Hostels)나 고급 숙소로 전환되어 주당 180~220달러(약 20만~24만 원) 정도가 요구됨. 단기 및 임시 숙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자 정보센터는 이용자를 보낼 곳을 찾기가 어려운 형편임.

- 1, 2, 3월은 무주택자 정보센터가 가장 바쁜 달임.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가계 상황이 악화되면서 가족해체, 가정폭력, 주택대출금 및 임대료 미납 등으로 숙소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가정이 증가하기 때문임. 특히 가구소득을 1인에 의존하는 세대의 경우 실직 등으로 가족 전체가 주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짐.

<시드니 무주택자 정보센터 서비스 추이>

회계연도	전체 전화상담 건수	전체 이용자 수
2006~2007	54,106	13,667
2007~2008	53,512	14,556
2008~2009	66,610	15,917
2009~2010	74,013	15,418
2010~2011	63,145	15,534
2011~2012	58,664	15,901

- 市는 2007년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전략’(Affordable Rental Housing Strategy)을 채택해 2030년까지 3000개의 저가 신규주택을 제공하고, 총 주택의 15%를 지불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또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구성한다는 목표로 주택공급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음.
- 市는 뉴사우스웨일스 주택부(Housing NSW)와 함께 ‘집으로’

(Way2Home)라는 무주택자 지원 서비스 운영을 재정 지원하여 지난 2년 동안 160명의 무주택자에게 장기 숙소를 제공함. 이러한 정책 시행과 아울러 지속적인 무주택자 정보센터의 재정 지원을 통해 일차적으로 노숙을 방지할 계획임. 동시에 뉴사우스웨일스 州정부와 협력해 지불 가능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 市는 또한 민간단체들과 더욱 긴밀히 연계해 무주택자를 방지하고자 함. 예를 들어 무주택자 정보센터는 YWCA에서 운영하는 ‘무주택자 중개 프로그램’(Homelessness Brokerage Program)에 의뢰해 교통비, 임대료, 미납 공과금 등을 지불할 수 있도록 긴급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가정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돕고, 필요한 경우 개인 소지품 보관소와 단기 긴급 숙소도 제공하고 있음.

([www.sydneymedia.com.au/citys-hpic-helpline-assists-45000-people-in-distress-every-year/](http://www.sydneymedia.com.au/citys-hpic-helpline-assists-45000-people-in-distress-every-year/))

## 행 정 · 재 정

市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제공 (프랑스 리옹市)

- 프랑스 리옹市는 2013년 2월 중순 市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함. 단순히 市 문화행사나 관광정보만을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시민 편의 중심의 실용적인 다목적 기능을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함. 신속한 정보 제공과 이용자 친화적인 단순한 사용법에 초점을 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각자 필요한 정보만을 찾아볼 수 있도록 6개 섹션으로 구성해 이용시간 단축에 신경을 씀. 섹션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실용정보 : 쓰레기처리장, 정기 시장, 공공화장실 등의 위치와 전화번호
- 여가 관련 공공기관 주소와 운영시간, 전화번호 수록 : 도서관, 수영장, 박물관, 피겨스케이팅장, 체육관, 공원 등
- 다양한 이동방식 관련 정보 제공 : 보행 코스, 자전거 도로, 자동차 경로 등을 소개함. 또한 가까운 공영 주차장이나 오토리브(Autolib, 공영 렌터카 시스템) 주차장 위치, 택시 정류장이나 가까운 대중교통 정류장 위치도 제공함.
-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등의 정보도 제공함.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차량이 주차장 출구를 막았을 경우 어디에 연락할지를 물어볼 수 있음.
- 시내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와 박람회 등을 소개함.
- 도시의 역사에 대한 색다른 정보 등을 매일 한 번 알람으로 알려주는 기능  
([www.lyon.fr/actualite/internet/lapplication-ville-de-lyon-est-de-sortie-.html](http://www.lyon.fr/actualite/internet/lapplication-ville-de-lyon-est-de-sortie-.html))

## 방 재 · 안 전

### 노인요양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2013년 1월 1일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안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3주 소재 노인요양시설은 올해 4월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함.
- 이번 조치는 2011년 11월 시드니 근교 Quakers Hill 지역의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많은 노인이 사망한 사건 이후 시설 노인들의 안전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스프링클러 설치에 화재의 강도를 낮추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화재에 대처하거나 대피할 시간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호주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노인요양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함.
  - 스프링클러 설치를 용이하게 하도록 설치 관련 허가기간을 단축하고, 주차장

이나 조경용으로 허가된 곳에 물탱크나 펌프 설치를 허가함.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노인요양시설을 구입한 사람에게는 최대 1년까지 유예기간을 줌.
  - 주거용도 이외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음.
- 2013년 4월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은 방문자와 시설 이용자에게 이에 관한 정보를 알리거나 웹사이트에 올려야 함. 만일 2014년 9월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못하는 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분명한 실행계획을 제출해야 함.
- 시골 및 벽지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재정상황 등으로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좀 더 줘 2016년 3월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함.
- 뉴사우스웨일스에는 6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연방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요양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음. 2012년에 실시된 연방정부 인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뉴사우스웨일스에는 600여 개 시설 2만 4000개의 침대가 스프링클러를 갖추고 있지 않음. 이는 전체 노인요양시설 건물의 55%에 해당함.

([www.planning.nsw.gov.au/media](http://www.planning.nsw.gov.au/media))

([www.planning.nsw.gov.au/PolicyandLegislation/SafetyCampaigns/Firesafetyinagedcarefacilities/tabid/596/language/en-AU/Default.aspx](http://www.planning.nsw.gov.au/PolicyandLegislation/SafetyCampaigns/Firesafetyinagedcarefacilities/tabid/596/language/en-AU/Default.aspx))

### 지반 액상화(液狀化) 대책 발표 (도쿄都)

- 도쿄都 도시정비국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반 액상화(液狀化)에 관한 대책을 최근 발표함. 이는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진원(震源)에서 멀리 떨어진 도쿄 임해부와 내륙 지반의 액상화로 목조주택 등 건축물이 기울어지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임.
- 액상화(液狀化, Liquefaction)라는 용어는 1953년 Mogami라는 일본 학자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지하수의 수위가 높은 연약한 모래 지반에 지진이 발생

하면 지진동에 의해 지반 전체가 액체처럼 되는 현상을 말함. 모래 입자가 작고 크기가 고를 때 발생하기 쉬우며, 물 먹은 진흙 모래가 지표로 분출하는 분사, 분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함. 특히 사질(沙質) 기반으로 되어 있는 매립지는 물을 머금게 되면 지진동에 의해 액상화가 일어나 내구력을 잃어 지반 침하를 일으키게 돼 큰 피해가 발생함. 액상화가 발생하면 대규모 사면붕괴가 유발되고 거대 구조물이 기울거나 가라앉으며 주위의 건축물, 교량, 지중 구조물 등이 파괴됨.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액상화에 의한 건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수첩을 만들고 액상화의 발생가능 구조, 지반 조사방법, 대책공법, 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복구공법 등의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함.
  - 지반 조사 데이터와 과거의 지형도 관련 정보를 건축주 및 건물 소유주 등에게 제공함.
  - 디자이너, 건축주 및 건물 소유주 등이 안심하고 대책을 상담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별 상담제도 등을 정비함.
- 지반의 액상화가 주로 하천과 바다의 매립 시가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都는 인근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연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www.metro.tokyo.jp/INET/KONDAN/2013/02/40n28200.htm](http://www.metro.tokyo.jp/INET/KONDAN/2013/02/40n28200.htm))

([www.metro.tokyo.jp/INET/KONDAN/2013/02/DATA/40n28201.pdf](http://www.metro.tokyo.jp/INET/KONDAN/2013/02/DATA/40n28201.pdf))

## 도 시 환 경

### 브롱크스강 유역에 ‘오염 컨트롤 장치’ 설치 (뉴욕市)

- 뉴욕市 환경보호국은 브롱크스강 유역으로 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개 하수 유출 지점에 ‘오염 컨트롤 장치’(Pollution Control Devices)를 설치함. 이는 뉴욕 하버와 연결되는 수로로 유입되는 일반 쓰레기 등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임. 이 시설은 나일론그물 시스템과 Hydraulic Bar Screen을 이용해 폐기물을 걸러냄. 이와 같은 기술이 뉴욕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장치가 설치된 지점은 West Farms Road, Bronx Park Avenue, Bronx Zoo, Sound View Park임. 나일론그물을 이용한 장치는 설치비용이 저렴한 데 반해 큰 비나 폭풍 후에는 직접 세척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Hydraulic Bar Screen의 경우는 설치비용은 더 들지만 자가 세척 기능이 있어 설치 후 유지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
- 市는 장치를 설치한 지 18개월간 10톤 이상의 폐기물 및 유기물 등을 걸러내는 성과를 거둠. 市는 이번 장치 설치로 지역 주민이 브롱크스강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www.nyc.gov/html/dep/html/press\\_releases/13-016pr.shtml](http://www.nyc.gov/html/dep/html/press_releases/13-016pr.shtml))

####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날카로운 의료폐기물 분리수거 (시드니市)

- 호주 시드니市는 1만여 개의 사용 후 주사기와 날카로운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 수거시스템에서 분리하는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추진해 그 공로를 인정받음. 의료기구나 장비에는 주사기, 주삿바늘 및 의료용 나이프, 혈액을 채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작은 의료용 핀 등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것이 많음. 市는 뉴사우스웨일스 州정부, 남동 시드니 보건구역, Northcott 공공임대주택 주민 등과 의료폐기물을 분리수거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 위험한 쓰레기 관리 분야에서 ‘지방정부 환경 우수상’(Local Government Excellence in Environment Award)을 받음.
- 날카로운 의료 쓰레기는 지역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당뇨와 같은 질환을 집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임. 당뇨환자들을 위해 많은 주삿바늘과 주사기가 배포되고 혈당수치 관찰을 위한 의료용 나이프도 많이 제공되고 있음. 또한 다른 약 복용을 위한 주사기도 많이 배포되고 있음.
-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는 특수한 쓰레기통을 사용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의료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은 보통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음. 그 결과 쓰레기 청소 및 재활용 담당자에게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음. 보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버려진 주사기에 찔려 감염 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매우 낮지만, 스트레스는 매우 크다고 지적함.

- 市는 ‘모든 이들을 생각하는 환경친화적 행동’(Sustainable Action Values Everyon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Northcott 지역에 1년간 시범적으로 2개의 특수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왜 그리고 어떻게 날카로운 의료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함.

· 이 시범사업을 통해 Surry Hills 지역에서 약 1만 710개의 날카로운 의료 폐기물을 분리수거함. 이 중 약 60%는 가정에서 질병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었음. 이 사업으로 약 97%의 날카로운 의료 폐기물이 수거된 것으로 추정됨.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市는 특수 쓰레기통을 해당 지역에 계속 유지시킬 계획임.

- 지방정부 환경 우수상은 뉴사우스웨일스 지방정부협회가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탁월한 성과를 올린 지방정부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음. 기후변화, 수질보존, 지속가능한 물자조달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지방정부가 모범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Surry Hills 지역에 설치된  
의료쓰레기 수거함〉

([www.sydneymedia.com.au/city-combating-medical-waste-injury/](http://www.sydneymedia.com.au/city-combating-medical-waste-injury/))

###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과정을 견학하는 버스여행 실시 (일본 교토市)

- 일본 교토市는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감량과 분리수거 및 재활용 의식을 높이기 위해 쓰레기 처리·자원화 시설을 견학하는 버스여행을 실시함. 市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형 상업시설에서 배출된 쓰레기의 행방을 따라가며 새로운 연료로 재활용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쓰레기 감량 에코버스 투어’를 운영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쓰레기 배출·수집·처리 과정을 차례로 견학하고 재활용 및 적정 처리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 단순히 시설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도록 여행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환경 전문가가 버스여행에 동참해 참가자의 이해도를 높여줌. 쓰레기 감량에 관심 있는 그룹이나 동아리, 지역사회단체, 일반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음.
- 쓰레기의 행방을 따라가는 도시 버스여행을 통해 기존 한 곳에 집중된 친환경 경시설 견학 방식을 탈피함과 동시에 시민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공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www.energy-saving-news.jp/news\\_uawFDmmXT.html](http://www.energy-saving-news.jp/news_uawFDmmXT.html))

([www.city.kyoto.lg.jp/kankyo/page/0000134701.html](http://www.city.kyoto.lg.jp/kankyo/page/0000134701.html))

([www.city.kyoto.lg.jp/kankyo/page/0000133992.html](http://www.city.kyoto.lg.jp/kankyo/page/0000133992.html))

### 친환경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 및 전기차 테스트센터 건립 (중국 상하이市)

- 전기자동차 시범운영 지역인 중국 상하이市는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정부 보조금과는 별도로 보조금과 자동차 번호판을 제공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 장려책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중앙정부는 하이브리드 차종을 구입하는 경우 대당 최대 5만 위안(약 880만 원), 순수 전기자동차는 최대 6만 위안(약 1050만 원)의 차량 구입 보조금과 차량 배터리 보조금 3000위안(약 50만 원)/kWh을 지급하고 있음. 상하이市는 이와 같은 정부 보조금과는 별도로 하이브리드 차종은 최대 2만 위안(약 350만 원), 순수 전기자동차는 최대 4만 위안(약 700만 원)의 차량구입 보조금과 차량 배터리 보조금 2000위안/kWh(약 35만 원)을 지급함.

- 市는 자동차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번호판 경매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 가격이 7만 5000위안(약 1300만 원)에 달함. 그런데 친환경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 번호판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중앙정부와 상하이市の 보조금 혜택을 합치면 최대 약 15만 5000위안(약 2700만 원)에 달함.
- 市는 보조금 정책과 함께 국제 자동차 박람공원에 전기자동차 테스트센터(EVZONE)를 중국 최초로 개장함. 또한 홈페이지도 개설해 출시된 전기자동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면허를 취득한 지 1년 이상 된 시민은 테스트센터에서 무료로 다양한 차종의 전기자동차를 테스트해볼 수 있음. 테스트센터는 매일 4종의 시승용 차량을 배치해놓고 있으며, 시승 희망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음. 시민이 직접 전기차를 테스트해 봄으로써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http://www.autohome.com.cn/news/201202/290362.html>)

(<http://auto.21cn.com/gouche/daogou/a/2013/0212/00/20386260.shtml>)

([www.chinadaily.com.cn/hqgj/jryw/2013-01-24/content\\_8115210.html](http://www.chinadaily.com.cn/hqgj/jryw/2013-01-24/content_8115210.html))

## 도 시 교 통

### 2. 보행환경을 점수화하는 웹 프로그램 (런던市 외)

- 8개의 지수를 이용, 도시의 보행환경을 평가해 그 정보를 알려주는 웹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런던, 샌프란시스코, 맨해튼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시카고, LA, 보스턴에서는 2013년 중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힘.

- 2007년 서비스가 시작된 'Walkscore'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시설이나

건물에 대한 접근성을 점수화해 도심지역의 부동산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왔음. 하지만 ‘Walkscore’는 접근성 및 접근 가능한 상점까지의 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제 보행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보행의 값어치에 대한 평가는 미미하다는 평을 받아 왔음.

- 이번에 개발된 ‘Walkonomics’는 보행 자체에 좀 더 중점을 두어 보행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 지수와 다양한 심리적 느낌을 계량화함. Walkonomics를 개발한 Davis가 정의한 8개의 지표는 ① 도로의 안정성, ② 도로 횡단의 안정성, ③ 보행도로의 질, ④ 구릉의 정도, ⑤ 길 찾기의 쉬움, ⑥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⑦ 도로의 아름다움, ⑧ 보행의 즐거움 등임.
- 이 지표를 산정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WalkoBot이라는 자동시스템을 개발해 모든 관련 자료를 자동적으로 분석, 도로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지만 이후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져 정보가 누적됨.
-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Davis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경로 선정 시 단순히 가장 빠른 길을 찾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길을 찾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보행환경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

([www.walkonomics.com/w/index.php/about](http://www.walkonomics.com/w/index.php/about))

([www.theatlanticcities.com/technology/2013/02/app-tells-you-how-walkable-street-really/4759/](http://www.theatlanticcities.com/technology/2013/02/app-tells-you-how-walkable-street-really/4759/))

### 3. 자전거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 등 실제로 자전거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담은 지도 제작 (미국 오스틴市)

○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市는 자전거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 등 자전거 이용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색깔과 굵기를 이용, 지도를 제작해 배포함.

- 이번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Nathan Wilkes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포틀랜드에서 이용되던 자전거 이용자 분류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힘. 포틀랜드의 자전거 이용자 분류법을 살펴보면, 이용자의 1%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전거 이용에 긍정적이고, 7%는 자전거 이용에 의욕적이고 승용차와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으며, 33%는 좀 더 편안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나머지 59%는 관심은 있지만 걱정이 많은 부류로 구분함.

- 이러한 분류법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이용에 대한 각기 다른 선호도를 가지고 있고 도로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경로 선정에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자전거 이용을 시도해 볼 용의가 있지만 도로에서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이용자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도로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임.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에 두려움이 있는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권장하는 효과를 가짐.



<자전거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 市는 안전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지도를 만들고 있음. 파란색의 두꺼운 선은 자전거 이용에 아주 편리한 도로를 의미하며, 교통량이 적은 도로는 녹색으로 표시하고 있음. 빨간색은 편리성이 가장 낮은 도로를 의미하고 화살표는 언덕을 의미함.



<여러 가지 색을 활용해 자전거 이용의 편리성을 표시한 지도>

- 지도 한 장을 통해 어느 도로를 이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한지에 대

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상당히 효율적임. 이 지도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접근해 이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손쉬운 방법을 이용해 이를 이용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음. 자녀와도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지도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음.

([www.theatlanticcities.com/commute/2013/02/bike-maps-give-riders-info-they-actually-need/4717/](http://www.theatlanticcities.com/commute/2013/02/bike-maps-give-riders-info-they-actually-need/4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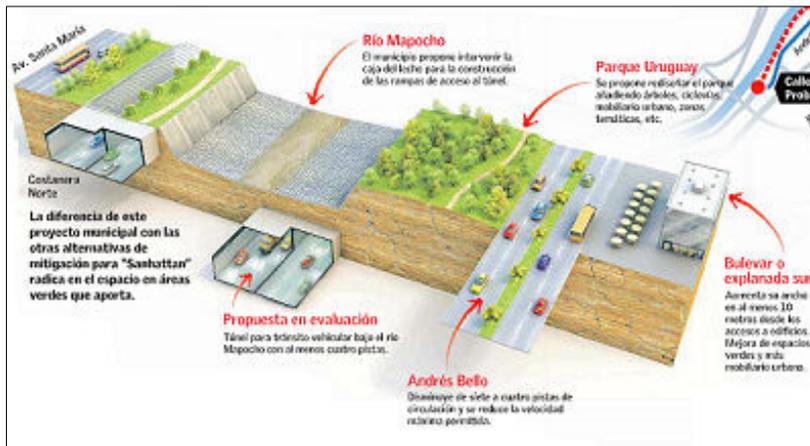
#### 4. 도심의 강 아래로 교통터널을 건설하고 지상에 녹지와 보행도로 조성 추진 (칠레 산티아고市)

○ 칠레 산티아고市 프로비덴시아(Providencia)區는 산티아고 중동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산티아고 시내 북쪽을 관통하는 마포초 강(Rio Mapocho) 아래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지하터널을 건설하고, 기존의 지상도로는 줄이고 녹지와 보행도로를 늘리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예정임.

- 현재 건설 중인 남미 최고층(350m) 복합상업시설인 코스타네라 센터 인근 금융상업지역이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센터 인근 지역을 단순 통과하는 차량은 강 아래 터널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상의 교통혼잡 및 소음을 줄이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임.

- 프로비덴시아區는 마포초 강 전체 구간 가운데 미겔 끌라오 지역에서 살데스 지역까지 약 3.2km 구간의 지하에 최소 왕복 4차로의 차량용 터널을 뚫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이 터널로 교통량을 흡수하는 대신 마포초 강 주변의 안드레스 베요 강변도로는 기존 7차로에서 4차로로 줄이고 최고 속도도 줄일 예정이다. 차로가 줄어든 자리에는 나무를 추가로 심고 테마 지역을 만드는 등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구상은 도시 건축가인 게르만 반덴이 2004년도에 제안했던 것으로 조만간 중앙정부에 정식 제안할 계획임. 현재 이 지역의 교통체증과 소음이 인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터널 건설을 재차 제안하게 됨.
  - 프로비덴시아區는 이러한 계획이 산티아고 중동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려는 프로젝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음. 區는 이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고 ‘21세기형 숲 공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마포초 강 아래 터널 건설 계획안>

(<http://diario.elmercurio.com/2013/02/16/nacional/nacional/noticias/f65e6615-22fc-4387-913d-f36862297eab.htm>)

(El Mercurio, 2013. 2. 16)

## 5. 자전거 주행공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도쿄都)

- 도쿄都는 자전거 주행공간의 네트워크화를 위해 오타구(大田區), 코토구(江東區)와 연계해 都가 관리하는 도로와 區가 관리하는 도로에 걸쳐 자전거 주행공간의 연속성 확보를 목표로 사회실험을 실시함.
  - 사회실험이란 새로운 제도나 기술 등의 시책을 자치체 등이 본격 도입·실시하기 전에 장소나 실시기관을 한정해 시책을 지역주민들과 시범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시책 과제 및 효과, 영향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
    - 이번 시책 실시지역은 오타區 이케가미역(池上駅) 주변 700미터 구간과 고토區 도요스역(豊洲駅) 주변 1400미터 구간이며, 실시기간은 2013년 2월 중 2주간임.
  - 이번 사회실험은 도로의 폭과 혼잡도 등의 상황에 따라 차도 또는 보도에 ‘자전거 내비마크’(自転車ナビマーク)를 표시해 자전거 주행공간을 확보하고 자전거의 주행 위치별 교통량 조사, 교차로에서 자전거 주행방법 조사, 자전거 이용자·보행자·자동차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동시에 실시함.
    - 자전거 내비마크란 자전거가 통행할 공간과 진행방향을 명시한 표시로, ‘법정 외 표시’이기 때문에 법규상 통행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아님. 또한 ‘자전거 우선’ 노선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비마크가 설치된 노선이라도 자동차와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음.



<사회실험 실시 이미지 및 내비마크 표시>

- 都是 원활한 사회실험 실시를 위해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5개 규칙’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5개 규칙>

내용	이미지
<p>1. 자전거는 차도 이용이 원칙이되, 보도 이용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경차로 분류되므로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곳에서는 차도 통행이 원칙임.</li> <li>※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보도에 ‘자전거 보도 통행 가능’ 표시가 있는 경우</li> <li>② 13세 미만 아동, 70세 이상 고령자, 신체 부자유자가 운전할 경우</li> <li>③ 안전상 차도 이용이 불가해 보도를 통해 통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li> </ol> </li> </ul>	
<p>2. 차도에서는 좌측통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가 차도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와 함께 좌측통행을 함.</li> </ul>	
<p>3. 보도는 보행자 우선이므로 자전거는 차도측에 가까이 붙어서 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운행을 일시 중지해야 함.</li> </ul>	

내용	이미지
<p>4. 안전규칙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주운전, 2인 동승, 자전거 2대 나란히 운행 금지</li> <li>· 야간 운행 시는 라이트 점등</li> <li>· 교차로에서는 신호 준수 및 일시 정지</li> </ul>	
<p>5. 어린이는 헬멧 착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과정의 어린이는 몸의 중심이 불안정하므로 전복 사고 시 머리를 다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또는 유아용 시트에 보호자와 동승할 경우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함.</li> </ul>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2/20n274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2/20n27400.ht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2/DATA/20n27400.pd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2/DATA/20n27400.pdf))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2/DATA/20n27401.pd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2/DATA/20n27401.pdf))

#### 무료 대중교통 이용 프로그램 시행 (에스토니아 탈린시)

-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시는 2013년 1월부터 42만 3000명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함.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교통량 감소를 위해 교통혼잡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지만 탈린시에서는 시민 모두에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도심의 교통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함.

- 이 프로그램 시행 이후 2013년 2월 말 현재 대중교통 이용률이 10% 증가하고 도심 교통량은 15% 감소하는 성과를 거둠. 그동안 무료 대중교통 이용 프로그램을 시행한 유럽의 가장 큰 도시는 시민 10만 명 규모의 프랑크 오바뉴(Aubange)시였으나 이번 프로그램 시행으로 탈린시가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됨.

- 그동안 대중교통 운행에 드는 비용의 70%를 보조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이후 1200만 유로(약 170억 원)가 추가 지급됨. 이를 토대로 시는 무료 대중교통 프로그램에 등록한 시민 1000명당 약 100만 유로

(약 14억 원)의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임.

- 市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70대의 버스와 15대의 트램을 확충함. 동시에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고 주차요금을 올렸으며 무료 주차구역을 유료화함. 시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유로(약 2800원)로 Public Transportation Card를 구입한 후 1유로(약 1400원)를 더 주고 웹사이트([www.pilet.ee/yhiskaart](http://www.pilet.ee/yhiskaart))에 등록해야 함.
-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나 실업자들이 평일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도심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이 도심에서 소비를 더 많이 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 설문조사에 따르면 75%의 시민이 이번 정책을 지지함.

([www.eurocities.eu/eurocities/news/Residents-enjoy-free-public-transport-in-Tallinn-WSP0-952EDX](http://www.eurocities.eu/eurocities/news/Residents-enjoy-free-public-transport-in-Tallinn-WSP0-952EDX))

([www.tallinn.ee/eng/pilet/Transport-Ticket-Information](http://www.tallinn.ee/eng/pilet/Transport-Ticket-Information))

### 초등학생 대상으로 자전거 타는 법 배우기 의무화 (프랑스 리옹市)

- 프랑스 리옹市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도심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市는 많은 아이가 도시에 산다는 이유(거주지 유형, 안전 문제, 가족 중에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 등)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함.
- 10세의 취학 아동이 자전거를 배우도록 한 이번 정책은 연간 40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함. 市는 초등학생이 도심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면 향후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 이 프로그램은 2011년 몇몇 학교에서 시범 실시된 후 2012년부터 도시 전체로 확대 시행됨. 학교 수업시간 중에는 체육교사 등에 의해 진행되며, 市가 지정한 기관에서 방과 후 교실로도 운영됨.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됨.
- 1단계(시험운행): 안전한 장소에서 자전거 타는 법 배우기

- 2단계(안전 주의): 도시 내에서 걸어 다니며 이동하는 법 배우기
- 3단계(도심 내 자전거 주행): 주변 환경에 유의하며 주행법 배우기

([www.lyon.fr/page/deplacements/les-modes-doux/apprendre-a-rouler-a-velo-en-ville.html](http://www.lyon.fr/page/deplacements/les-modes-doux/apprendre-a-rouler-a-velo-en-ville.html))

## 2013년 세계 주요도시 시장 신년사 (요약)

---

1. 뉴욕市 / Michael Bloomberg 시장
  2. 애틀랜타市(조지아주) / Kasim Reed 시장
  3. 포트워스市(텍사스주) / Betsy Price 시장
  4. 파리市 / Bertrand Delanoë 시장
  5. 리옹市 / Gerard Collomb 시장
  6. 뮌헨市 / Christian Ude 시장
  7. 도쿄都 / 이노세 나오키(猪瀬直樹) 지사
-

## 1. 뉴욕市 /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시장

○ 주목할 만한 2012년도 도시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음. ① 방문객 수 5200만 명, ② 평균 수명 80.9세, ③ 도보 10분 이내 공원이 있는 시민 비율 76%, ④ 민간부문 일자리 수 320만 개, ⑤ 자살인구 419명, ⑥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 58명. 이와 같은 지수를 토대로 2013년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에 역점을 둘 예정임.

-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핵심 기반시설 개선을 완료할 계획임.
  - Rezone East Midtown: 해당 Borough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사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행자도로와 보행환경, 대중교통을 개선해 구역 전체가 73년 이상 된 East Midtown 지역을 전반적으로 살기 좋은 구역으로 업그레이드시킴.
  - Third Water Tunnel: 市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반시설 확충 공사인 관로 개보수 및 건설을 통해 획기적인 환경개선 효과와 먹는 물 공급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함.
  - Number 7 Train Extension: 42번가에서 7번가까지, 타임스퀘어가 있는 34번가에서 11번가까지 지하철 확장공사가 있을 예정으로 500개 이상의 일자리도 함께 창출함.
  - High Line: 市는 2009년 West 30~34번가 등에 High Line이라는 철도를 만들고 그 끝에 High Line 공원을 조성했는데, 연내 이와 연계된 몇몇 시설을 준공하고 세부 프로젝트를 완료함.
- 폐기물을 저감하고 재활용을 늘리며 폴리스티렌폼 사용을 금지할 계획임.
  - 연내 5개 Borough에 재활용 컨테이너를 1000개 이상 추가 설치함.
  - 식당 및 식료품점을 대상으로 음식물 포장에 폴리스티렌폼 사용을

금지함.

- 대규모 태양열전지를 설치하고 재활용교육센터를 운영함.
  - 매년 20만 톤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해 톤당 10만 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더 저렴한 방법으로 에너지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
- 전기자동차 활용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임.
- 운전자가 30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함.
  - 민간개발 시 공용주차장의 20%를 전기자동차 전용으로 바꿈.
  - 택시도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로 점진적으로 교체함.
- 공교육을 강화할 계획임.
- 교육 프로그램과 교실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는 교육 보조 프로그램을 강화함.
- 디지털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 급작스러운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활용을 독려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함.
  - 중심 업무지구에서의 Wi-Fi 서비스를 확충함.
- 2012년 허리케인 샌디 이후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2013년에도 지속할 계획임.
- 2013년 5월까지 재난 및 재해 발생 시에도 市의 핵심 기반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극단적인 날씨에 대처할 수 있는 병원, 주유소, 식료품점 등의 유지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점검함.

- 수변지역의 경제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卹정부와의 연계를 강화함.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卹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경찰력뿐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를 동원해 위기에 처해 있는 피해자  
    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노후 건축물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임.
  - 노후 건축물 혹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축물을 개보수해 (주거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활용도를 증진하고 부족한 주택공급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
  
- 뉴욕이 세계 관광 수도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젊은 층이 관광하기 쉽도록 유스호스텔 등의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장려함. 이를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함.

([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www.nyc.gov%2Fhtml%2Fom%2Fhtml%2F2013a%2Fpr064-13.html&cc=unused1978&rc=1194&ndi=1](http://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www.nyc.gov%2Fhtml%2Fom%2Fhtml%2F2013a%2Fpr064-13.html&cc=unused1978&rc=1194&ndi=1))

([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www.nyc.gov%2Fhtml%2Fom%2Fhtml%2F2013a%2Fpr065-13.html&cc=unused1978&rc=1194&ndi=1](http://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www.nyc.gov%2Fhtml%2Fom%2Fhtml%2F2013a%2Fpr065-13.html&cc=unused1978&rc=1194&ndi=1))

## 2. 애틀랜타市(조지아州) / 카심 리드(Kasim Reed) 시장

- 지난 3년간 우리 市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음. 2013년도에도 우리 市의 주요 과제는 공공안전, 재정안정, 배려하는 도시 창조라고 생각함. 각 과제별로 우리가 이루었던 성과를 토대로 다시 나아가야 할 것임.
  - 3가지 주요 과제 중 애틀랜타를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애틀랜타 경찰국이 지난 3년간 범죄율을 1969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0년 2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도시의 주요 범죄율이 16% 감소함.
    - 또한 경찰국은 700명 이상의 신규 경찰을 고용해 경찰병력이 현재 1940여 명에 달함. 이로써 조지아州에서 가장 크고 애틀랜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법집행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정한 2000명이라는 경찰병력 달성 목표에 거의 다다름.
  - 우리 市는 대공황 때부터 계속되어온 최악의 경기침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지난 3년간 부동산세를 인상하지 않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음.
    - 우리 市의 지급준비율은 2010년 1월 740만 달러(약 80억 원)에서 2012년 6월 현재 1억 2670만 달러(약 1380억 원)로 증가함. 이에 힘입어 무디스는 우리 市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음.
    - 2011년에 연금제도를 개혁함으로써 市 예산을 향후 10년간 약 2억 7000달러(약 2935억 원), 향후 30년간 약 5억 달러(약 5435억 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현재 市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도시의 모든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다시 열고 이들을 대부분 희망센터(Center for Hope)로 전환하는 것임. 희망센터 사업은 공동체 천국을 만드는 것으로, 이곳에서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여러 스포츠와 체육활동을 접하며 자신들의 특성을 개발하고 방과 후 학습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우리 市는 Thomasville과 Adamsville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쳤으며, 그 결과 현재 1주일 기준으로 900여 명의 아이들이 이용함. 올해에는 희망센터 사업을 Ben Hill과 Pittman 커뮤니티에 확대 적용할 예정임. 이 사업을 위해 코카콜라社, 웰스파고 은행 등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어 400만 달러(약 43억 5000만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함.
- 3년 전 시장으로 당선될 당시 애틀랜타 대도시권은 10.2%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8% 미만을 기록하고 있음. 공항의 경우 새로운 터미널 건설로 1700여 명의 일자리가 2012년 5월 이후 만들어짐.
  - 2012년 5월 16일 Hartsfield-Jackson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Maynard H. Jackson Jr. 국제터미널을 개통함. 이 터미널은 약 11만㎡에 달하는 최신식 터미널로 이미 우리 市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음. 애틀랜타 국제공항은 불과 몇 주 전에 승객 수 9500만 명을 기록하며 15년 연속 세계에서 승객들로 가장 붐비는 공항으로서 명성을 얻음.
  - 2012년 한해 35개의 경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2024명의 직접적인 고용창출과 1292명의 간접적인 고용창출을 이루어냈으며, 7억 달러(약 7600억 원) 이상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데 성공함. 市 경제개발 담당부서는 민간으로부터 6600만 달러(약 717억 원)를 유치, 2개의 새

로운 주택건설 사업을 시작해 150가구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음.

- 현재 우리 도시를 바꾸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애틀랜타 벨트라인(Atlanta BeltLine) 사업이 있음. 이 프로젝트는 Sierra Club이 지정한 2012년 미국 최고의 교통프로젝트로 선정되었음.
  - 지난 3년간 4.5마일(약 7.2km)의 산책로와 30에이커(약 12만㎡)에 이르는 4개의 공원을 조성했으며, 80에이커(32만㎡)에 달하는 오염된 땅을 깨끗한 땅으로 탈바꿈시키고 210세대가 넘는 공공주택을 건설함. 현재까지 4100만 달러(약 446억 원)에 달하는 민간 재원을 지원받고 있음.

- 올해 우리 市는 그동안 지연된 9억 2200만 달러(약 1조 원)에 달하는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에 착수할 계획임. 방범 카메라와 애틀랜타 공립학교를 연계해 학습환경의 안정성도 향상시킬 것임. 다음 세대의 리더가 더욱 건강한 도시기반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미래의 비즈니스에 더욱 초점을 맞출 예정임.

([www.atlantaga.gov/index.aspx?page=736](http://www.atlantaga.gov/index.aspx?page=736))

### 3. 포트워스市(텍사스주) / 벤티시 프라이스(Betsy Price) 시장

- ‘It’s Your Fort Worth’는 우리 市를 대표하는 슬로건임. 이 슬로건 아래 2012년 한 해 동안 큰 발전을 이뤄왔음. 2013년에도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진일보해야 함.
  - 우선적으로 도시발전을 위해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은 도시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임. 市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공유하기를 원함. 시청은 언제나 열려 있음.

- 시민과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시민과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새로운 市 홈페이지 개설을 준비하고 있음.
  -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민과의 대화를 위해 ‘고객서비스 전용 직통전화’를 개설함. 또한 시정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No Wrong Door’ 서비스를 제공함.
  - 미래의 포트워스를 만들기 위한 SteerFW에 젊은이들의 참여를 독려함. 새로운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토론회에 젊은이들의 참여를 요청함. 젊은 시민의 목소리는 도시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동력임.
- 지역발전 자문위원회는 지역 기업과의 협력 및 번영을 모색하는 데 더욱 힘쓸 계획임.
- 현재 우리 市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퇴색해 가고 있음. 포트워스는 도시의 역사와 이야기를 보여주는 많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보전하고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처럼 도시의 역사를 보전하고 만들어 가는 것과 동시에 새로 이주해 오는 시민을 따뜻하게 맞이할 필요도 있음.
- 현재 우리 市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난제가 있지만 더 많은 기회가 우리 앞에 열려 있음. ‘포트워스 시민’으로서 그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함.

(<http://fortworthtexas.gov/mayor/message.aspx?id=106170>)

#### 4. 파리市 / 베르트랑 들라노에(Bertrand Delanoë) 시장

○ 현재 파리市의 인구는 다른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2년 전보다 약 11만 8000명의 인구가 증가했는데, 이 중 청년은 약 3만 명임. 이러한 인구변화상을 반영해 2013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분야에 역점을 둘 계획임.

##### - 주거정책

- 5억 400만 유로(약 7145억 원)를 주거부문에 투자할 예정임. 2013년 6000가구의 주택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460가구의 주택 건설을 위해 12區에 있는 소방서를 매입할 예정임. 시민단체들이 시위 목적으로 무단 거주했던, 사용되지 않고 있는 12區의 유치원도 매입해 노숙인 등의 주거지로 활용할 계획임.
- 사회주택의 배분 절차를 개선하고 공동세입자 제도를 간소화할 것임. 2015년까지 전체 주택 중 사회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5%가 되도록 할 계획임. 중앙정부에 빌트인 주택의 월세 상한선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 또한 2013년까지 학생주택 4000호를 건설할 예정임.

##### - 공공서비스 분야

- 유아원을 확충해 수용인원을 1500명 늘림.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도서관 2개소, 양로원 2개소 등을 신축할 예정임. 문화 시설로 룩소르 영화관, 이슬람 문화원, 장부앙 운동장 등을 개장할 계획임.

##### - 도시계획 분야

- 끌리쉬-바티뇰(Clichy-Batignolles), 파리 북동지구(Paris Nord Est),

파리 좌안지구(Paris Rive Gauche)를 정비할 예정임.

- 파리 메트로폴 정책

- 파리 메트로폴 정책에 2억 3000만 유로(약 3260억 원)를 투입할 예정임. 레지옹-파리-도-코뮌 간 협력체계로 파리 메트로폴 거버넌스 기구를 신설함. 이 협력체계를 통해 주거문제, 노숙자 임시숙소, 소외 방지, 환경문제 등을 공동으로 풀어가고 재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함.
-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일드프랑스 교통조합에 3억 6700만 유로(약 5200억 원)를 지급할 계획임. 또한 불량주거 문제도 해소할 예정임.

- 투자/혁신/고용 분야

- 2012년에 8900개의 기업이 늘어났으며, 실업률은 8.4%로 국가 전체 평균 9.7%보다 낮음.
- 2013년에 투자, 혁신, 고용 부문에 170억 유로(약 24조 1000억 원)를 투자할 예정임. 10만m<sup>2</sup> 규모의 기업양성소를 확충하고 의학 기술, 디자인, 영상 산업 부문을 장려할 것임. 관광산업 전문 기업 양성소도 신설하고 소규모 상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가 쉽도록 상업 임대차 관리를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임.

- 환경 분야

- 파졸 지구의 태양열 생산센터를 완공하고 옥상녹화 프로젝트를 공모할 예정임. 바피뇰 지구의 모든 건물에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하고 옥상을 녹화하도록 함. 또한 25ha의 녹지를 정비할 예정임.
- 바피뇰 지구에 압축공기를 사용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임. 학교, 유아원, 병원 근처를 대상으로 30km/h의 속도제한구역을 조성함.

- 남녀평등: 장소명을 짓는 데 남녀의 이름을 평등하게 사용할 계획임.  
([www.paris.fr/accueil/actualites-municipales/logement-emploi-service-public-les-annonces-de-bertrand-delanoe-pour-2013/rub\\_9656\\_actu\\_124397\\_port\\_23785](http://www.paris.fr/accueil/actualites-municipales/logement-emploi-service-public-les-annonces-de-bertrand-delanoe-pour-2013/rub_9656_actu_124397_port_23785))

## 5. 리옹市 / 제라르 콜롬브(Gerard Collomb) 시장

- 2013년도에도 협력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유러피안 메트로폴리스를 건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 특히 지역 대학, 연구자, 기업, 시민 등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과 핵심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 콩플루앙스 개발: 여러 사회계층이 함께 거주하고 여러 사회기능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며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친환경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함. 이는 미래 인텔리전트 도시의 성공적인 모델을 창조하는 것임.
    - 콩플루앙스는 ‘두물머리’라는 뜻으로 리옹 도심의 좌우로 흐르는 손강과 론강이 만나는 합류지점임. 20세기까지 주로 가축시장과 공장, 창고 등이 자리했던 구역임. 市는 최근 몇 년간 이 구역에 론잘프 도청을 유치하고 제3의 새로운 상업/문화/주거 복합지역으로 개발하는 데 지역개발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음.
  - ‘그랑 리옹’(Grand Lyon) 창조: 그랑 리옹은 리옹과 그 외곽도시들을 하나의 도시권으로 묶은 일종의 광역시로서, 아직 슬럼화되지 않은 리

용 주변 도시들이 새로운 주민과 기업을 수용하면서 다시금 현대성의 상징이 되도록 새롭게 창조함.

- 학문체계의 순환프로젝트 실현: 리옹권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지역사회의 모든 연구와 교육의 중심을 상징적·물리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프로젝트임. 환경프로젝트에도 집중해 리옹의 도시외관을 흉하게 만드는 A7 고속도로 경로를 변경함.
- 리옹, 유러피안 메트로폴리스: 우리 도시를 유러피안 메트로폴리스로 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함. 공공재정이 부족하기에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것은 단순화함. 리옹이 계속 매력적인 도시로 남고, 리옹권 주민들이 계속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임.

([www.lyon.fr/cs/Satellite?blobcol=urldata&blobheadername1=Content-Disposition&blobheadername2=MDT-Type&blobheadername3=Content-Type&blobheadervalue1=inline%3B+filename%3D%222241%2F588%2F20130107\\_D\\_VOEUX\\_CORPS\\_CONSTITUES.pdf%22&blobheadervalue2=abinary%3B+charset%3DUTF-8&blobheadervalue3=application%2Fpdf&blobkey=id&blobtable=MungoBlobs&blobwhere=5000013026142&ssbinary=true](http://www.lyon.fr/cs/Satellite?blobcol=urldata&blobheadername1=Content-Disposition&blobheadername2=MDT-Type&blobheadername3=Content-Type&blobheadervalue1=inline%3B+filename%3D%222241%2F588%2F20130107_D_VOEUX_CORPS_CONSTITUES.pdf%22&blobheadervalue2=abinary%3B+charset%3DUTF-8&blobheadervalue3=application%2Fpdf&blobkey=id&blobtable=MungoBlobs&blobwhere=5000013026142&ssbinary=true))

## 6. 뮌헨市 / 크리스티안 우데(Christian Ude) 시장

○ 2013년의 주요 어젠다는 주택, 육아 및 교육, 교통 분야임. 각 분야별로 추진할 주요 시책은 다음과 같음.

### - 주택 분야

- 뮌헨市的 현재 인구는 140만여 명이며, 2014년에는 150만 명을 초과할 전망이다. 따라서 주택을 충분하게 보급하는 것이 市の 중점 과제가 되고 있음.
- 市는 독일 최대의 지방 주택건설계획인 ‘뮌헨주택’(Wohnen in München)을 통해 수년 전부터 주택건설을 촉진해 왔음. 1990년 이 계획이 발표된 이래 11만 5000세대의 주택이 뮌헨에 공급되었음. 2013년 올해에도 48헥타르에 달하는 옛 군부대 부지에 약 3000세대의 주택과 학교, 유치원 및 상점이 들어서는 등 많은 대형 주택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임.
- 장기적으로 최대 2만 명의 주민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뮌헨 최대의 주택건설사업인 프라이함(Freiham) 북부 개발사업 역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 올해 안에 1단계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2017년에 제1차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 육아 및 교육 분야

- 市 출산율은 증가 추세로서 2012년에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1만 5000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어남.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 따라 유아보육시설의 수요도 증가해 市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게 됨.
- 현재 市는 약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탁아소, 유치원, 방과 후 시설, 전일제 유치원 등을 전일제 보육교사의 관리 하에 운영하고 있

으며, 향후에도 계속해서 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임. 2013년에만 약 9000만 유로(약 1280억 원)의 예산을 보육시설 건립에 투입해 약 4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0개 이상의 신규 보육시설을 건립함.

- 특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3세 이하의 유아를 위한 시설로, 올해 안에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계획임. 이럴 경우 수용률은 현재 53%에서 적어도 6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됨.
- 유아기 이후의 성장 및 교육에 대해서도 부모들의 수요가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 종일반 운영 역시 활성화할 것임. 현재 뮌헨의 초등학교에는 약 2만 7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과 후 시설과 시립 보육원, 급식시설 및 종일반 교실이 운영되고 있어 뮌헨 초등학생의 69%를 종일반에 수용할 수 있음. 오는 9월 신학년 시작 시점까지 875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과 후 시설 및 보육원을 마련할 예정임.
- 학교 건설에도 적극 투자할 것임. 지난 4년 동안 학교의 신축, 확장, 개축에 7억 7000만 유로(약 1조 910억 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며, 올해에는 학교 건축을 위해 지난해의 2배에 해당하는 2억 1400만 유로(약 3030억 원)를 투자할 예정임.

#### - 교통 분야

- 뮌헨의 지하철, 버스, 트램(노면전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뮌헨 대중교통회사인 MVG를 이용한 승객은 2011년 한 해에 5억 2200만 명에 이르렀고, 2012년에는 더욱 증가함. 그런데 승객들이 더 빠르고,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수단을 원함에 따라 MVG는 이러한 요구와 더불어 환경보호 요구에 발맞추어 지하철, 버스, 트램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음.
- 2013년 市와 MVG는 1억 5000만 유로(약 2120억 원) 이상을 대

중교통 건설 및 현대화를 위해 투자할 것임. 이 중 1/4 이상을 차량 설비를 위해 투자할 계획임. 시내버스는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개편함. 새로 도입된 10대의 열차형 버스는 최대 13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음. 목적지까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에는 우선 진입 신호가 가능한 교통설비를 30대 더 도입할 예정임.

- 40년 이상 된 노후 역사(驛舎)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임. 약 2800만 유로(약 400억 원)가 지하철 역사의 개보수와 현대화를 위해 투입될 것임.
- 올해 겨울학기부터는 뮌헨지역 대학생을 위한 학기티켓이 도입됨. 이 티켓은 대학에 등록한 학생이 등록 기간 중에 지역 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임. 독일 대부분의 도시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장래 뮌헨 근거리교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 지역의 교통체계를 기능화하는 것임. 이를 위해 제2의 통근터널 건설이 필수적임. 市는 이미 터널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www.muenchen.de/rathaus/Stadtfos/OB-Kolumnen/2013/KW-01.html](http://www.muenchen.de/rathaus/Stadtfos/OB-Kolumnen/2013/KW-01.html))

([www.muenchen.de/rathaus/Stadtfos/OB-Kolumnen/2013/KW-02.html](http://www.muenchen.de/rathaus/Stadtfos/OB-Kolumnen/2013/KW-02.html))

([www.muenchen.de/rathaus/Stadtfos/OB-Kolumnen/2013/KW-05.html](http://www.muenchen.de/rathaus/Stadtfos/OB-Kolumnen/2013/KW-05.html))

## 7. 도쿄都 / 이노세 나오키(猪瀬直樹) 지사

- 도쿄都는 도시의 역할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일본 GDP의 2할 가까이를 都가 창출하고 있는 국가적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와 난관을 해결해나감으로써 일본을 빛낼 수 있는 ‘빛나는 도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 2013년에는 ‘주민의 안전·안심’을 최우선 과제로 해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비책과 에너지대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활동에 주력할 방침임.
- 재난대책: 3·11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난이 다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제정한 ‘귀가곤란자 조례’에 따라 민간기업 및 모든 건물이 재난 용품을 예상 이용자의 110%, 72시간 이상분을 비축하고 부동산업계·대중교통업계·상업시설 등이 공조체계(自助·共助·公助)를 갖추어 귀가곤란자 문제에 대응할 예정임.
- 지하철대책: 도쿄 지하철은 재난 발생 시에도 지하에서 효율적인 정보 접근을 위해 무선인터넷 통신선을 증설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의 신속한 탈출을 위해 도쿄메트로의 엘리베이터를 현재의 80%에서 100%로 증설하며, 환승역 이동통로의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할 예정임.
- 복지대책: 현재 4000세대 수준의 고령자용 케어주택(ケア付住宅)을 2015년까지 1만 세대로 늘리고, 인증보육시설의 수도 확대할 예정임.
- 에너지대책: 후쿠시마에서 공급받지 못하는 900만 킬로와트의 전력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1700만 킬로와트 규모의 노후 화력발전소를 보수하고 메가솔라, 풍력발전 등의 다양한 전력공급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며, 도민들의 절전과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구함.

- 도쿄올림픽 유치: 2013년은 2020년 올림픽·장애인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해임과 동시에 ‘스포츠축제 도쿄 2013년’ 등의 스포츠행사가 개최되는 해임. 일본 전체의 부흥과 도민의 활력 증진을 위해 도쿄올림픽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올림픽 유치를 통해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에서도 성화 봉송주자가 달리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부활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공급: 都의 30여 개 부·국이 전체 및 개별 계정으로 다양한 이벤트, 주요 정보 등을 제공하고 웹상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임.
- 기타 시책
  - 都의 관료주의를 격파함으로써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을 응원하고 도쿄의 매력을 높여 도민·국민·기업 등이 화합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임.
  - 일본의 미래를 여는 열쇠는 ‘말의 힘’임. 일본의 역사가 길러 온 언어기술과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언어기술을 모두 습득하도록 해 언어력이 뛰어난 일본인을 길러낼 계획임.
  - 둘로 갈라져 있는 도쿄의 지하철(도쿄메트로, 도영지하철)의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임.

([www.metro.tokyo.jp/GOVERNOR/tomin.htm](http://www.metro.tokyo.jp/GOVERNOR/tomin.htm))

([www.koho.metro.tokyo.jp/koho/2013/01/aisatsu.htm](http://www.koho.metro.tokyo.jp/koho/2013/01/aisatsu.htm))